천국 공무원

(행18:9~17)

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 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2.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13.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14.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주는 것이 옳거니와
15.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16.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국 공무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은 독일의 국가교회 됨에 있습니다.
이 독일교회가 국가교회라고 하는 것이 피부에 닿게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목사님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신수비가 나라에서 나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가 1990년대 초였는데, 그때는 오히려 몰랐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의 통계를 보니까, 50세쯤 될 경우에 목사님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 원 정도의 신수비를 받으십니다.
또한 목사님들의 세계에서도 위 계층이 계시잖아요? 연세가 많이 들면서, 감독이 되신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많게는 천만 원 가까운 돈을 다달이 신수비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교회에서 목사님을 할 때는,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목사님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독일의 모든 국민들은 어느 도시에서든지 태어나게 되면 시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고, 성인이 되면 저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개신교에 속하든 천주교에 속하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교적을 두고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시청에다가 내가 개신교인으로 살겠다, 천주교인으로 살겠다는 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 대충 천주교인이 48~9% 개신교인이 46~7% 정도로 천주교인이 조금 많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프라이어 키르케 (freie Kirche)라는 자유교회, 즉 우리나라식의 교회에요.
공무원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침례교가 들어갔다든지, 순복음교회, 장로교회가 들어가 가지고,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교회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소수이지요.

이 독일교회 목사님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미주지역의 교회나 우리나라 교회의 목사님들과 제일 크게 다른 점은, 성장에 대한 강박감이 없습니다, 이 분들은.
이미 교인 수는, 독일이라는 나라 안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47% 정도가 개신교인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교인을 늘린다, 만다가 과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독일교회 목사님들한테는.
그리고 내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 수가 적어도, 나라에서 월급을 줄 때, 교인 수를 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목사님의 호봉 수를 따라서 나라에서 급여를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을 늘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교인을 늘려 봐야 각기 자기가 사는 시청에다가, 개신교인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니까, 그 이성적인 독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꼭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와야만 된다는 그런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회 하는 교회가 성장을 한다든지, 숫자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우신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 교회나 미주교회, 풀러 신학교에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무척 못마땅한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교회를 온통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교회 성장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한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개신교인 1,200만이다고 한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현재 870만이고, 870만이라는 통계조차도, 다 허황된 통계입니다 그게 다, 870만도 아니에요.
순복음 교회가 70만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다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교적을 관리 했는가를 제가 알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 숫자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성장에 목을 매고 부흥 부흥, 숫자적인 부흥에 목을 매고 목회를 했지만, 30년 결과가, 불교도는 늘어나고 천주교도는 늘어났는데, 전혀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지낸 이런 종교들은 늘어났는데, 개신교는 줄어버렸어요, 줄어도 팍 줄었어요.

교인은, 독일에서 교인이 정해진 것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은, 목사님이든지 또 일반 교인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 사역자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무원입니다. 천국 공무원이에요.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고, 숫자상의 성장을 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강박관념으로부터 빠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목사님들이 공무원으로 살면서, 단점이 있어요. 자극을 못 받아요.
근데 이곳 한국이나 미주지역에서는, 성장이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자극제가 돼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연구하는 태도나 습관이나 깊이에 있어서, 우리나라 신학교 교수님들이 독일 웬만한 목사님보다 그렇게 낫다고 확정지을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 이런 고전어 실력도 목사님들보다 못해요, 우리나라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냥 보통 목사님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독일 목사님들도 차이가 많겠지만.
그리고 독일은, 어쨌든 교인 숫자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독일식 공무원이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무원 의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다 천국 공무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가져야 될 의식이 뭐냐 하면, 천국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심어준 성장에 대한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독일 목사님들을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비시켜서 우리나라나 미주지역의 목사님들을 구태여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비즈니스맨이에요, Business man.
공무원은 성장에 대한 강박감이 없습니다,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면 돼요.
비즈니스맨은 달라요, 이게 내 몫이고 내 기업이 돼버려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일단 내 기업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비즈니스 마인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에서도 마케팅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대고 있는 겁니다.
미쳤어요, 미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사역을 소개하는 가운데, 실라와 디모데가 합세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총화입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안 잡혔느냐? 충만과 덜 충만의 차이겠지요.
심하게 떨고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합세를 하면서, 그들 속의 예수님을 보면서, 내 속에 예수님이 충만해집니다,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전도를 하는데, 강력한 힘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9절 앞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을 말하는데, 회당장이 여럿 있는 가운데 그리스보, 디아스포라 유대사회에서 제일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이 회당장입니다.

근데 회당장이 넘어갔어요, 개종이 됐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듣고.
그리고 많은 고린도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바울의 마음에 예감이 되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거센 박해와 반발이 고개를 들 것이라고 하는 예감이 들 무렵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사회가 유대사회로 유지될 수 있기 위한 기둥인 존재인데, 이 기둥뿌리와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유대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당연히 바울을 다른 도시에서처럼 박해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 스스로가 예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감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라, 내가 네가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장애가 없도록 다 처치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붙들리는 거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가 하면, 아직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전의 상태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나 신자도 아닌 백성이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헬라어의 라오스라고 하는 말이 백성이에요, 백성.
국민, 족속, 이런 뜻이 들어 있는 내 백성이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는가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도시에 있든지 말씀을 전하다보면 개종자가 생기고 유대인의 박해가 있어요.
박해가 있으면 떠났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선교지역을 옮겨 다니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가 확장되는 계기가 된 거에요 박해가, 긍정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었는데, 박해가 주어져서 떠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예를 들면 빌립보면 빌립보, 또 루스드라면 루스드라, 더베면 더베, 이런 도시에서 선교를 할 때, 그 도시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예정된 자들은 다 듣고 개종을 한 뒤에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박해가 주어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고린도지역에서는 무려 1년 반이나 머물게 하십니다.
그만큼 많았던 거예요.
고린도 성 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겐그리아라는 성도 그렇고, 고린도라고 하는 시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 전체를 1년 반 동안에 고린도를 기점으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게 하십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백성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독일 목사님들이, 이미 교인 수는 시청에 등록된 대로 정해져 있어요.
제가 괴팅겐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괴팅겐 도시 안에서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뛴다는 마음을 가질 수 없고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은, 괴팅겐 시청에 가면 이미 교인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가톨릭 교인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그거 합치면 거의 97~8%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를 돋보기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어디서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야곱교회 다니고, 교회 이름이 야곱교회 요한교회 이런데, 야곱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을 요한교회로 꼬셔서 데리고 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목사님 월급도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나 저 교회에서나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이고, 시청에 교인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성장이라는 말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의 인격 안에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이 주님을 향하여 성장하느냐가 과제이지, 숫자가 성장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의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성장의 강박관념을 갖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비즈니스가 되어 버립니다, 비즈니스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성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겉으로 보면 성장이에요.
그러나 내막적으로 보면, 그 3,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설교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듣고 교인이 된 사람 중에, 하나님이 딱 보시다가, '어! 너는 누구냐 도대체? 어! 의외의 인물이 들어왔네, 어! 그것 참 신기하다!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이 나의 백성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구나!' 이런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인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교인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공무원으로서,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을 찾아내는 것이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중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여 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독일교회가 이제 정해진 교인 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느냐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인 숫자는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성 안에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
아직 듣지도 못했어요, 말씀을, 복음을.
예수라는 이름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유대인들이그 아가야 지방을 다스리는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는데, 갈리오 총독이 지혜롭게 판결을 해서, 유대인의 문제는 유대인 안에서 해결하라고 그 고소를 기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지켜 주시는 겁니다.
왜? 당신이 예정한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백성들에게, 적어도 바울을 통해서 찾아내시려고 작정하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방해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박해가 있었다면, 이미 그 리스트에 든 사람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딴 장소로 옮기시려고 그랬던 것이었겠지요.

여러분, 예정론이다, 또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가 구원의 역사에 cooperation 해야 된다, 싸움

이 많습니다.
싸움이 많은데, 예정론은 캘빈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체계화해서 예정론이라는 name을 붙인 거예요.
라벨을 붙인 것이지 예정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교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복음이 자꾸 퇴색하는 이유는, 십자가복음을 복음대로 원래의 그 의미를 그대로 노출을 시키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겠다고 돈에 사로잡혀 있고, 높이 올라가겠다고 하는 정신에 고무되어 있고, 형통에 온 마음이 다 뺏겨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자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먹히겠느냐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교인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사업에 정말 정신이 다 팔려 가지고 돈, 돈 하는 사람이라도, 거기다 대고 도~저히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죽읍시다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정 리스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소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가 너무 달라서,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고 길을 열자, 이게 다 비즈니스 마인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을 부인하는, 다분히 이교도적이고 이단적인 마인드에서 출발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아무데나 대고 얘기하세요! 얘기하도록 허락되면.
주뼛거리고 눈치 보면서 십자가복음 자체를 퇴색시키거나, 십자가복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왜곡시키지는 마세요, 안 전하면 안 전했지.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용기가 안 생겨서 못 전하면 못 전했지, 자꾸 기독교의 복음을 퇴색 시키지 마요.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당신 사업에 대해 죽고.
그러니까 사업가가 들으면 미친 소리이지요.
당신 자식에 대해 죽고, 자식 기르는 엄마가 들으면 돈 소리입니다.
내 건강에 대해서도 일단은 먼저 죽어라.
이게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십자가 복음이 그거에요.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소리같이 들리는 이 십자가복음을 누가 듣겠느냐는 걱정을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리스트에 올려놓은 예정된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니까, 마음 놓고 십자가 복음을 원색적으로 얘기하면서, 사업 때문에 걱정하는 김 집사님에게 사업에 대해 죽으라고 얘기하고, 자식 때문에 노심초사 하는 김 권사님에게, 자식에 대해 죽으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정된 리스트에 백성들을 찾아내서 채우는 것이지, 성장하지 않습니다.
독일 교회와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 말씀사역자들, 그리고 내가 이미 말씀을 받았다면 또 내가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다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공무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 공무원으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그 누구에게나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전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교회를, 또 말씀 전하는 것을, 비즈니스맨의 마인드로서 생각하지 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천국 공무원으로서, 십자가 복음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그래서 마음과 귀가 열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